다이호지 절

일본 열도의 서쪽 끝에 있는 고토 열도의 남서부에 위치한 다마노우라는 예로부터 중국과 일본을 왕래하는 많은 여행자들이 통과한 곳입니다. 8 세기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는 진언종 사찰인 다이호지 절의 해변 경내에는 그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806 년에 밀교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가 귀국한 승려 구카이(774~835)가 다이호지 절을 방문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공부해 훗날 진언종을 창시하는 계기가 된 가르침을 다이호지 절에서 설파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다이호지 절은 구카이와 인연이 있는 곳으로서, 진언종의 총본산인 고야산(긴키 지방)과 관련지어 '서쪽의 고야산'이라고도 불립니다.

본당 뒷산에 있는 오층탑은 1369 년에 현재의 후쿠이현 와카사 만의 해안에서 산출된 석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고토의 상인들이 중국에서 들여온 상품을 와카사 만 등 일본해(한국명 동해) 쪽의 항구로 운반해 팔았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석재는 이러한 경위로 고토에 반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탑은 어린아이의 수호신으로 숭배받고 있으며, 신생아의 탯줄을 탑 안에 넣고 기도를 드리는 관습이 있습니다.

또한, 1375 년에 주조된 다이호지 절의 구리 범종도 현재의 효고현에서 중국으로 향하던 승려가 들여온 것입니다. 동중국해를 건너는 위험한 여행을 하는 동안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라며 이 종을 기진한 것입니다. 현재, 범종은 비바람을 맞지 않도록 종루 옆에 있는 건물에 보관되어 있습니다.